

보도시점

배포 즉시

배포

2026. 1. 8.(목) 10시

## “국내 귀환 동포 정착, 이제 전담부서가 돕는다” 재외동포청, 「귀환동포정착지원과」 신설

- 국내 귀환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효과적 지원 제공

- 재외동포청(청장 김경협)은 해외에서 생활하다가 국내로 돌아온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2026년 1월 ‘귀환 동포정착지원과’를 새로 만든다.
-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귀환 동포는 약 86만 명에 이른다. 이들은 언어와 문화, 민족적 정체성 등을 우리 국민과 공유하고 있지만, 그동안 이를 전담해 지원하는 부서가 없어 생활과 정착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어왔다.
- 재외동포청은 작년 4월부터 임시조직인 ‘국내동포지원TF’를 운영하며 귀환 동포 지원을 시작했으나, 귀환 동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지원 수요도 커지면서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이르렀다.
- 신설되는 ‘귀환동포정착지원과’는 △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사업 지원 △나이와 상황에 맞춘 동포 정착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△우수 동포 인재 국내 유치 및 정착 지원 △국내 귀환 동포 관련 조사·연구 △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의 협력 등 업무를 통해, 재외동포청 소관 국정과제이자 중점과제인 “국내 귀환 동포 지원 강화” 업무를 수행한다.
- 특히 전년 대비 2.7억원 증액된(증가율 39%) 지자체 지원예산 9.6억원과 1억원 증액된(증가율 198%) 민간단체 지원예산 1.5억원을 활용해 국내 귀환 동포 정착 및 권익 신장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.

- 또한 올해부터 ‘우수 동포 인재의 국내 유치 및 정착 지원 사업’을 새로 시작한다. 이 사업은 국내 정착을 희망하는 국내·외 동포 청년을 대상으로 교육·취업·정착 지원 등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, 총 30억 9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.

□ 재외동포청은 이번 전담부서 신설을 계기로 그동안 제도적 지원이 부족했던 귀환 동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국내생활을 시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. 끝.

|       |           |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재외동포청     | 책임자 | 팀장  | 김동욱 | (032-585-3280) |
|       | 국내동포지원TF팀 | 담당자 | 주무관 | 김성환 | (032-585-3283) |

